

## 少陰人 藥方의 형성과정에 관한 研究

배효상\* · 박성식\*

### Abstract

## The study on the formative process of Soeumin prescription

Bae Hyo-Sang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 1.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atch the expansion of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rough comparison DongyiSooseBowon Chopanbon with DongyiSooseBowon 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bobon.

#### 2. Method

I compared the Soeumin's prescriptions and medications of DongyiSooseBowon Chopanbon with those of DongyiSooseBowon Chobonguen and DongyiSooseBowon Gabobon.

#### 3. Result and conclusion

1. The Soeumin's medications used in the prescriptions of Chobonguen are 44 and those of Gabobon are 47, those of Chopanbon are 46.

2. Soeumin's Medications of the same kind in Chobonguen's precriptions and Gabobon's and Chopanbon's are twenty-five; like Daejo(大棗), Jinpi(陳皮), Gamcho(甘草), etc. And these medications are the principle in Soeumin's disease.

3. Soeumin's Prescriptions of the same name in Chobonguen's precriptions and Gabobon's and Chopanbon's are two; Gwakhangeunggisan(藿香正氣散) and Bogungikgitang(補中益氣湯). These two principle prescription of experience(宋元明 少陰人經驗行用要藥).

4. Soeumin's Prescriptions of the same name in Chobonguen's precriptions and Gabobon's are two; Gwakhangeunggisan(藿香正氣散) and Bogungikgitang(補中益氣湯). Chobonguen's precriptions were composed of Old prescriptions(古方) except the medications those were considered of wrong Sasng Constitutional medications.

5. Soeumin's Prescriptions of the same name in Gabobon's precriptions and Chopanbon's are nine and except Padudan(巴豆丹) have differences in the kind of medications and quantites. This fact shows that Dongmu(東武) roform the Sasng Constitutional prescriptions continuously.

6. As this, Dongmu(東武) selected Sasang Constitutional prescription and medication in detail as he has the more experince of treatment.

Key words : Formative process, Soeumin Prescription, Chobonguen, Gabobon, Chopanbo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배효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 031-710-3737

E-mail) bhs70@hitel.net

## I. 緒論

『東醫壽世保元』을 통하여 東武 李濟馬는 四象人體質病證藥理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는 그의 初期 著作부터 『東醫壽世保元』에 이르기까지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東醫壽世保元』에 제시된 東武의 新定方과 이 新定方に 사용된 藥物은 한시기에 설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다년간의 임상경험과 東武의 四象方劑 立方原理에 입각하여 몇 번의 변화단계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新定方 선택의 변화는 東武의 저작인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sup>1)</sup>, 『東醫壽世保元 甲午本』<sup>2)</sup>, 『東醫壽世保元 初版本』<sup>3)</sup>을 비교해보면 그 대강의 윤곽을 알 수 있다.

藥方を 입방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藥物의 선택이 중요하며 이러한 藥物의 선택기준에 관해서 최근에 발표된 연구로 朴<sup>4)</sup>은 四象人의 臟理에 따라 적용되는 藥의 藥性和 體質病證에 따라 新定方を 제정하게 되는 理由와 목적 및 新定方の 구성원리를 알려주는 東武의 초기 생각이 「東武遺稿 藥性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金<sup>5)</sup>등은 臟腑觀과 病證觀에 바탕한 藥性 분석 도구로서의 四象 개념 중 升降開闔의 관점이 가장 유용하고 神氣血精의 四黨 배속과 表裏寒熱, 馨臭液味の 개념이 부분적으로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研究에서 東武遺稿<sup>6)</sup>에 기재된 藥物의 분류와 藥性歌의 藥性이 四象藥方の 구성원리에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는데,

升降開闔의 관점에서 少陰人의 脾之病을 해결하려고 든 藥材는 官桂 附子 當歸 川芎 木香 陳皮 參 朮 鹿茸 紫河車之類이며 이 藥에 대한 基本藥性은 升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馨臭液味の 관점에서 少陰人의 藥性인 臭는 “其臭猛烈而壯於脾”라 하여 藥物중 독특한 香이 강한 藥物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少陰人의 腎大脾小한 臟理의 過不足상태를 해결하려는 개념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藥物로 官桂 附子 白朮 當歸 등속을 제시하고 있다.

四象藥方の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로는 옥<sup>7)</sup>등은 『草本卷』과 『初版本』에 기재된 同名處方을 비교하였고, 배<sup>8)</sup>등은 東武遺稿의 藥材 분류에 따라 太陰人 新定方に 사용된 藥物이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에서 어떻게 변하여 갔는지를 파악하였고, 각 문헌에 기재된 太陰人 同名處方을 비교하여 太陰人 新定方の 형성과정을 파악하였다. 이로써 『草本卷』에 기재되어 있는 藥方은 病證論에 대한 제시가 없이, 體質에 따른 藥方の 구분과 각 藥方에 대한 主治證만이 기재되어 體質病證藥理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甲午本』에 와서야 體質에 따른 病證論의 제시와 이에 맞는 藥方을 배속하여 體質病證藥理가 논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初版本』의 新定方은 『甲午本』의 新定方과 藥物의 구성 및 病證의 소속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보이며, 『甲午本』의 모든 新定方이 『初版本』으로 이어지는 않는데, 이러한 사실은 『甲午本』을 거쳐 『初版本』이라는

1) 이하 『草本卷』이라 한다.

2) 이하 『甲午本』이라 한다.

3) 이하 『初版本』이라 한다.

4) 朴性植.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7

5) 김중열·김경요. 四象 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少陰人編).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1):8-16

6) 李濟馬 著. 량병무·차광석 譯. 東武遺稿國譯漢醫學大系 15). 서울:海東醫學社. 1999.

7) 옥운영·김경요.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의 비교를 통한 사상방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43-55

8) 배효상·박성식. 太陰人 處方の 형성과정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10-123

시기까지 東武가 계속적으로 藥方에 대해 改抄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에 著者는 『草本卷』 少陰人 藥方,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を 비교하여 少陰人 新定方に 선택된 藥物의 변화과정과, 각 문헌에 同名으로 기재된 藥方의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少陰人 新定方の 형성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 Ⅱ 本 論

### 1. 『草本卷』 少陰人 藥方과 『甲午本』,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の 약물 비교

#### 1) 少陰人 藥方과 藥物의 개수

『草本卷』 少陰人 藥方은 18종으로 사용된 藥物은 44종이고,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은 28종으로 사용된 藥物은 47종이며,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은 31종으로 사용된 藥物은 46종이다. 『草本卷』에서 『甲午本』으로 가면서 藥方의 개수가 증가됨에 따라 藥物의 개수도 증가되었으나, 『甲午本』에서 『初版本』으로 가면서는 藥方의 개수는 증가하였으나 藥物의 개수는 감소하는 변화를 보인다.

2) 『草本卷』 少陰人 藥方 및 『甲午本』,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に 나타난 공통 藥物  
『草本卷』 少陰人 藥方,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に 사용된 藥物 중 모든 문헌에 공통으로 사용된 藥物은 大棗, 陳皮, 甘草, 白芍藥, 生薑, 白何烏, 人參, 當歸, 白朮, 黃芪, 川芎, 附子, 香附子, 青皮, 蘇葉, 蒼朮, 半夏, 藿香, 砂仁, 桂皮, 大腹皮, 厚朴, 木香, 山查肉, 小茴香의 25종이다.

『草本卷』 少陰人 藥方에서는 44종의 藥物이 사용되었고, 이들 44종의 藥物 중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과 공통되는 藥物은 大棗, 生薑, 甘草, 陳皮, 白朮, 半夏, 當歸, 人參, 川芎, 蒼朮, 白芍藥, 砂仁, 厚朴, 藿香, 白何烏, 蘇葉, 香附子, 大腹皮, 木香, 香薷, 黃芪, 桂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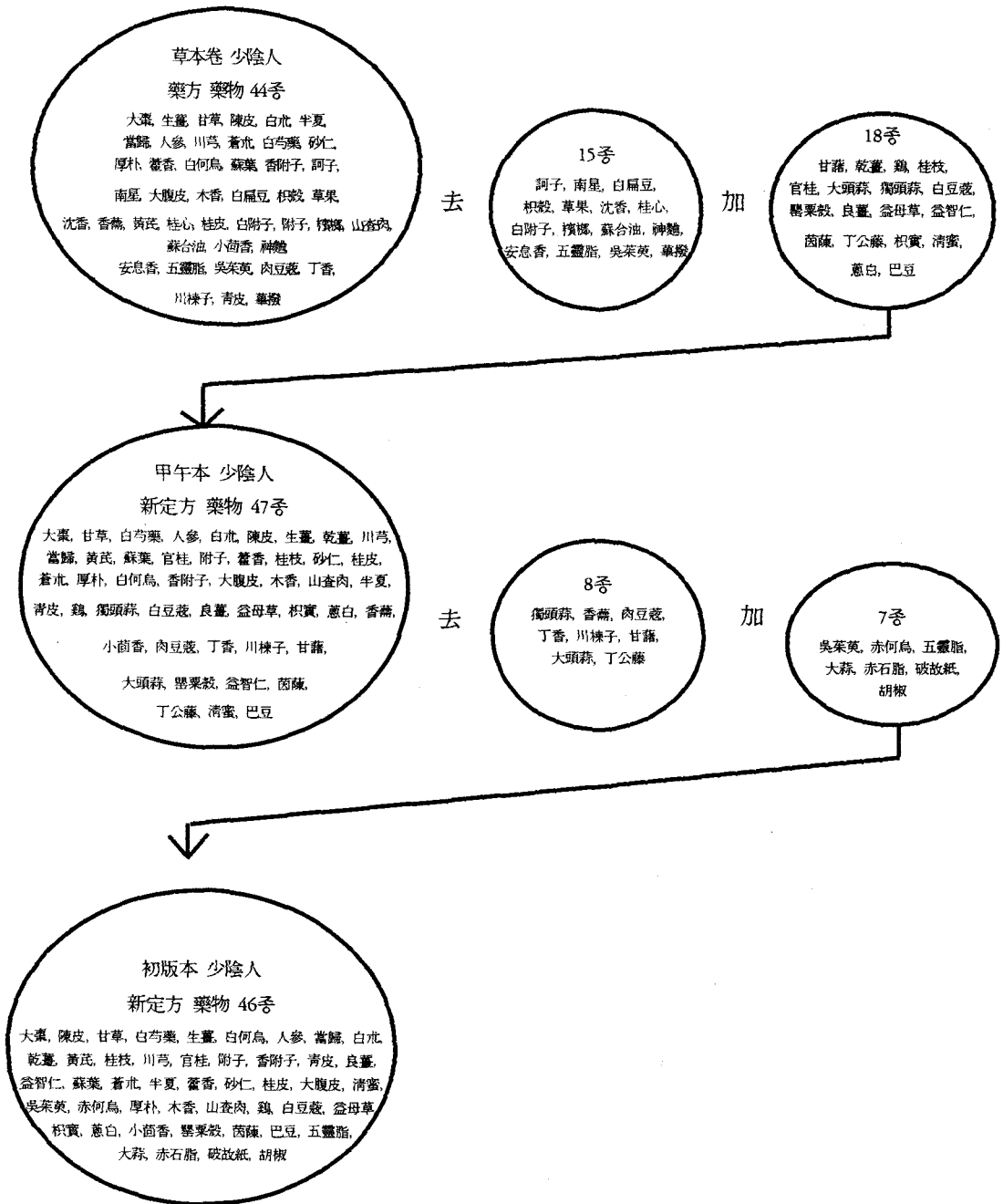
附子, 山查肉, 小茴香, 肉豆蔻, 丁香, 川棟子, 青皮의 29종이고,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에서 사용되지 않는 藥物은 訶子, 南星, 白扁豆, 枳殼, 草果, 沈香, 桂心, 白附子, 檳榔, 蘇合油, 神麩, 安息香, 五靈脂, 吳茱萸, 蕁撥의 15종이다.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에서는 『草本卷』 少陰人 藥方의 44종의 藥物에서 15종의 藥物을 제외하고 甘藷, 乾薑, 鷄, 桂枝, 官桂, 大頭蒜, 獨頭蒜, 白豆蔻, 罌粟殼, 良薑, 益母草, 益智仁, 茵陳, 丁公藤, 枳實, 清蜜, 蔥白, 巴豆의 18종의 藥物을 추가하여 47종의 藥物이 사용되었다.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47종의 藥物 중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과 공통된 藥物은 大棗, 陳皮, 甘草, 白芍藥, 生薑, 白何烏, 人參, 當歸, 白朮, 乾薑, 黃芪, 桂枝, 川芎, 官桂, 附子, 香附子, 青皮, 良薑, 益智仁, 蘇葉, 蒼朮, 半夏, 藿香, 砂仁, 桂皮, 大腹皮, 清蜜, 厚朴, 木香, 山查肉, 鷄, 白豆蔻, 益母草, 枳實, 蔥白, 小茴香, 罌粟殼, 茵陳, 巴豆의 39종이고,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に 사용되지 않는 藥物은 獨頭蒜, 香薷, 肉豆蔻, 丁香, 川棟子, 甘藷, 大頭蒜, 丁公藤의 8종이다.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에서는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の 47종의 藥物에서 8종의 藥物을 제외하고 吳茱萸, 赤何烏, 五靈脂, 大蒜, 赤石脂, 破故紙, 胡椒의 7종을 추가하여 46종의 藥物이 사용되었다. 이 少陰人 藥物의 변화과정은 그림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草本卷』에서 『初版本』으로 연결되는 藥物은 25종의 공통 약물과, 吳茱萸와 五靈脂의 2개 藥物로 27종의 藥物이 『草本卷』에서 『初版本』으로 이어지는 藥物들이다.

『草本卷』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가 『甲午本』에서 추가되고, 다시 『初版本』에서 사용되지 않는 藥物들은 獨頭蒜, 甘藷, 大頭蒜, 丁公藤의 4개 藥物이 있다.



(그림 1)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少陰人 藥方의 藥物의 변화과정

3) 『草本卷』 少陰人 藥方 및 『甲午本』,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에 사용된 藥物의 빈도

(1) 『草本卷』 少陰人 藥方 藥物의 사용빈도

『草本卷』 少陰人 藥方에서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것은 生薑과 大棗로 총 25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甘草가 17개의 藥方에 사용되었고, 白朮이 14개, 陳皮가 13개, 人參인 12개, 白芍藥이 10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當歸 川芎은 8개의 藥方에 사용되었고, 半夏는 7개, 木香과 砂仁이 6개, 白何首烏와 蘇葉, 蒼朮이 5개의 藥方, 厚朴이 4개, 藿香과 香附子가 3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2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訶子, 桂皮, 南星, 大腹皮, 白扁豆, 枳殼, 草果, 沈香, 香薷, 黃芪이고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桂心, 白附子, 附子, 檳榔, 山查肉, 蘇合油, 小茴香, 神麩, 安息香, 五靈脂, 吳茱萸, 肉豆蔻, 丁香, 川楝子, 靑皮, 藁撥이다.

(2)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藥物의 사용빈도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에서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것은 甘草와 大棗로 총 23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白芍藥이 21개의 藥方에 사용되었고, 人參이 20개, 白朮이 19개, 陳皮가 16개, 生薑이 14개, 乾薑이 13개, 川芎이 11개, 黃芪와 當歸가 10개, 紫蘇葉과 官桂가 8개, 附子가 7개, 藿香과 桂枝가 5개, 砂仁과 桂皮가 4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3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厚朴, 香附子, 蒼朮, 山查肉, 白何烏, 木香, 大腹皮이고, 2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靑皮, 枳實, 益母草, 白豆蔻, 半夏, 良薑, 獨頭蒜, 鷄, 蔥白이며,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小茴香, 香薷, 巴豆, 清蜜, 川楝子, 丁香, 丁公藤, 茵蔯, 益智仁, 肉豆蔻, 罌粟殼, 大頭蒜, 甘藷이다.

(3)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 藥物의 사용

빈도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에서 가장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것은 陳皮와 大棗로 총 22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甘草가 21개의 藥方, 白芍藥과 生薑이 20개, 人參과 當歸가 15개, 白朮이 14개, 白何首烏가 13개, 乾薑이 12개, 黃芪가 11개, 桂枝가 10개, 川芎과 官桂, 附子, 香附子, 靑皮가 7개, 益智仁和 良薑과 益智仁이 6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3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蘇葉, 蒼朮, 半夏이고 2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砂仁, 藿香, 桂皮, 大腹皮, 赤何烏, 吳茱萸, 清蜜이며, 1개의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木香, 巴豆, 茵蔯, 小茴香, 白豆蔻, 蔥白, 五靈脂, 厚朴, 枳實, 山查肉, 益母草, 赤石脂, 罌粟殼, 大蒜, 破故紙, 鷄, 胡椒이다.

각 문헌별 少陰人 藥物의 빈도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다.

(4) 각 문헌별 少陰人 藥方 藥物의 사용빈도 비교

각 문헌별로 가장 많이 쓰인 藥物은 『草本卷』에서 『初版本』으로 가면서 차이를 보이는데 大棗는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에서 모두 가장 많이 쓰인 藥物으로써 少陰人에 대표적인 藥物로 볼 수 있으며, 『草本卷』의 生薑, 『甲午本』의 甘草, 『初版本』의 陳皮가 大棗와 같이 가장 많이 쓰인 藥物이다.

이 중 生薑은 『草本卷』 藥方에서는 25개의 藥方에 사용되었고, 『甲午本』 新定方에서는 14개의 藥方에 사용되었으며, 『初版本』 新定方에서는 20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甘草는 『草本卷』 藥方에서는 17개의 藥方에 사용되었고, 『甲午本』 新定方에서는 23개의 藥方에 사용되었으며, 『初版本』 新定方에서는 21개의 藥方에 사용되었다. 陳皮는 『草本卷』 藥方에서 13개의 藥方에 사용

되었고, 『甲午本』 新定方에서는 16개의 藥方に 사용되었으며, 『初版本』 新定方에서는 22개의 藥方に 사용되면서 『初版本』 新定方에서 가장 다 빈도의 藥物로 자리잡게 된다.

『草本卷』 藥方에서는 사용되었다가 『甲午本』 新定方에서는 안 쓰이고 다시 『初版本』 新定方에서 사용되는 藥物로는 五靈脂, 吳茱萸를 들 수 있다.

『草本卷』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가 『甲午本』에서 추가되고, 다시 『初版本』에서 사용되지 않는 藥物들은 獨頭蒜, 甘藷, 大頭蒜, 丁公藤의 4개 藥物이 있다.

『草本卷』에서 『甲午本』, 『初版本』의 藥物 빈도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sup>9)</sup>

① 『草本卷』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증가되었고, 『初版本』에서도 『甲午本』보다 증가되는 藥物은 陳皮, 當歸, 黃芪, 靑皮, 良薑, 益智仁, 淸蜜, 桂枝의 8개 藥物이다.

② 『草本卷』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증가되었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보다 감소되는 藥物은 白芍藥, 白朮, 人參, 川芎, 蘇葉, 藿香, 山查肉, 鷄, 白豆蔻, 益母草, 枳實, 蔥白, 乾薑, 官桂, 桂皮, 大腹皮, 大頭蒜, 獨頭蒜, 甘藷, 丁公藤의 20개 藥物이다.

③ 『草本卷』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증가되었고, 『甲午本』과 『初版本』에서는 동일한 藥物은 附子, 罌粟殼, 茵陳, 巴豆의 4개 藥物이다.

④ 『草本卷』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감소되었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보다 증가되는 藥物은 生薑, 半夏, 吳茱萸, 五靈脂, 白何烏의 5개 藥物이다.

⑤ 『草本卷』보다 『甲午本』에서 사용

빈도가 감소되었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보다 감소되는 藥物은 厚朴, 大棗, 木香, 砂仁, 香薷의 5개 藥物이다.

⑥ 『草本卷』보다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감소되었고, 『甲午本』과 『初版本』에서는 동일한 藥物은 蒼朮, 訶子, 白扁豆, 枳殼, 草果, 沈香, 桂心, 白附子, 蘇合油, 神麩, 安息香, 蕁撥, 南星의 13개 藥物이다.

⑦ 『草本卷』과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동일하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보다 증가되는 藥物은 香附子, 赤何烏, 大蒜, 赤石脂, 破故紙, 胡椒의 7개 藥物이다.

⑧ 『草本卷』과 『甲午本』에서 사용빈도가 동일하고, 『初版本』에서는 『甲午本』보다 감소되는 藥物은 肉豆蔻, 丁香, 川棟子の 3개 藥物이다.

⑨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에서 사용빈도가 모두 동일한 藥物은 小茴香의 1개 藥物이다.

『草本卷』 少陰人 藥方에서 1개의 藥方に 사용된 藥物은 전체 少陰人 藥方 44개 중 16개로 약 36.4%를 차지하고,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에서 1개의 藥方に 사용된 藥物은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藥物 47개 중 13개로 약 28%를 차지하며,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에서 1개의 藥方に 사용된 藥物은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 藥物 46개 중 17개로 약 37%를 차지한다.

9) 藥物중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初版本 少陽人 新定方に 없는 藥物은 사용빈도수를 0으로 파악하였다.

[표 1] 少陰人 藥方의 각 문헌별 多頻度 藥物에 따른 배열

草本卷의 多頻度 藥物에 따른 배열				甲午本의 多頻度 藥物에 따른 배열				初版本의 多頻度 藥物에 따른 배열			
藥物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藥物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藥物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大蘆	25	23	22	大蘆	25	23	22	大蘆	25	23	22
生薑	25	14	20	甘草	17	23	21	陳皮	13	16	22
甘草	17	23	21	白芍藥	10	21	20	甘草	17	23	21
白朮	14	19	14	人參	12	20	15	白芍藥	10	21	20
陳皮	13	16	22	檳出	14	19	14	生薑	25	14	20
人參	12	20	15	陳皮	13	16	22	人參	12	20	15
白芍藥	10	21	20	生薑	25	14	20	蒼朮	8	10	15
蒼朮	8	10	15	乾薑	13	13	12	白朮	14	19	14
川芎	8	11	7	川芎	8	11	7	白何烏	5	3	13
半夏	7	2	3	蒼朮	8	10	15	乾薑	13	13	12
木香	6	3	1	黃芪	2	10	11	黃芪	2	10	11
砂仁	6	4	2	蘇葉	5	8	3	桂枝	5	10	12
白何烏	5	3	13	官桂	8	7	7	川芎	8	11	7
蘇葉	5	8	3	附子	1	7	7	官桂	8	7	7
蒼朮	5	3	3	藿香	3	5	2	附子	1	7	7
厚朴	4	3	1	桂枝	5	5	10	香附子	3	3	7
藿香	3	5	2	砂仁	6	4	2	黃芪	1	2	7
香附子	3	3	7	桂枝	2	4	2	貝薑	2	6	6
附子	2	3	1	木香	6	3	1	益智仁	1	1	6
桂枝	2	4	2	白何烏	5	3	13	蘇葉	5	8	3
南星	2	2	2	蒼朮	5	3	3	蒼朮	5	3	3
大蘆皮	2	3	2	厚朴	4	3	1	半夏	7	2	3
白扁豆	2	1	1	香附子	3	3	7	砂仁	3	5	2
枳殼	2	1	1	大蘆皮	2	3	2	砂仁	6	4	2
葶藶	2	1	1	山萸肉	1	3	1	桂枝	2	4	2
沈香	2	1	1	半夏	7	2	3	大蘆皮	2	3	2
香薷	2	1	1	黃芪	1	2	7	消痰	1	1	2
黃芪	2	10	11	龜	2	2	1	吳茱萸	1	1	2
桂心	1	1	1	獨頭蒜	2	2	2	赤何烏	1	1	2
白附子	1	1	1	白豆蔻	2	1	1	木香	6	3	1
附子	1	7	7	貝薑	2	6	6	厚朴	4	3	1
檳榔	1	1	1	益母草	2	1	1	山萸肉	1	3	1
山萸肉	1	3	1	枳實	2	2	1	龜	2	2	1
蘇合油	1	1	1	黑白	2	2	1	白豆蔻	2	2	1
小茴香	1	1	1	香薷	2	1	1	益母草	2	1	1
神麴	1	1	1	小茴香	1	1	1	枳實	2	1	1
安息香	1	1	1	肉豆蔻	1	1	1	黑白	2	1	1
五靈脂	1	1	1	丁香	1	1	1	小茴香	1	1	1
吳茱萸	1	1	2	川楝子	1	1	1	藜蘆散	1	1	1
肉豆蔻	1	1	1	甘草	1	1	1	藜蘆	1	1	1
丁香	1	1	1	大蘆皮	1	1	1	巴豆	1	1	1
川楝子	1	1	1	藜蘆散	1	1	1	五靈脂	1	1	1
青皮	1	2	7	益智仁	1	6	6	大蒜	1	1	1
蘇椒	1	1	1	四硫	1	1	1	赤石脂	1	1	1
甘草	1	1	1	丁公藤	1	1	1	破故紙	1	1	1
乾薑	13	12	12	消痰	1	2	2	胡椒	1	1	1
龜	2	1	1	巴豆	1	1	1	獨頭蒜	2	2	2
桂枝	5	10	10	附子	2	2	2	香薷	2	1	1
官桂	8	7	7	南星	2	2	2	肉豆蔻	1	1	1
大蘆皮	1	1	1	白扁豆	2	2	2	丁香	1	1	1
大蒜	2	1	1	枳殼	2	1	1	川楝子	1	1	1
獨頭蒜	2	1	1	葶藶	2	1	1	甘草	1	1	1
白豆蔻	2	1	1	沈香	2	2	2	大蘆皮	1	1	1
藜蘆散	1	1	1	桂心	1	1	1	丁公藤	1	1	1
貝薑	2	6	6	白附子	1	1	1	附子	2	2	2
益母草	2	1	1	檳榔	1	1	1	夜星	2	2	2
益智仁	1	6	6	蘇合油	1	1	1	白扁豆	2	2	2
四硫	1	1	1	神麴	1	1	1	枳殼	2	2	2
赤石脂	1	1	1	安息香	1	1	1	葶藶	2	2	2
赤何烏	1	1	1	五靈脂	1	1	1	沈香	2	2	2
丁公藤	1	1	1	吳茱萸	1	1	1	桂心	1	1	1
枳實	2	1	1	蘇椒	1	1	1	白附子	1	1	1
消痰	1	2	2	大蒜	1	1	1	檳榔	1	1	1
黑白	2	1	1	赤石脂	1	1	1	蘇合油	1	1	1
破故紙	1	1	1	赤何烏	1	1	1	神麴	1	1	1
巴豆	1	1	1	破故紙	1	1	1	安息香	1	1	1
胡椒	1	1	1	胡椒	1	1	1	蘇椒	1	1	1

비고 : 1. 표안에 숫자는 각 藥物이 사용된 회수이다. 2. 甘草와 炙甘草는 甘草로 통일하였다. 3. 陳皮와 橘皮는 陳皮로 통일하였다. 4. 炮乾薑과 乾薑은 乾薑으로 통일하였다. 5. 蘇葉과 紫蘇葉은 蘇葉으로 통일하였다. 6. 茴香과 小茴香은 小茴香으로 통일하였다. 7. 附子和 炮附子는 附子로 통일하였다. 8. 獨頭蒜, 大蒜, 大頭蒜은 구분하여 각각의 藥物로 파악하였다. 9. 活套까지 포함하면 草本卷 少陰人 藥方은 25종이고,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은 28종이며,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은 32종이다. 10. 草本卷 少陰人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44종이고,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에 사용된 藥物은 47종이며,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에 사용된 藥物은 46이다.

## 2. 少陰人 新定方の 형성과정

1) 『草本卷』少陰人 藥方과 『甲午本』少陰人 新定方 및 『初版本』少陰人 新定方の 同名藥方

『草本卷』少陰人 藥方과 『甲午本』少陰人 新定方 및 『初版本』少陰人 新定方に 동일하게 命名된 藥方은 藿香正氣散과 補中益氣湯의 2개 藥方이다.

### (1) 藿香正氣散

藿香正氣散은 『草本卷』에 보이는 藥物의 分量과 종류가 『甲午本』에서 달라지고 또한 『初版本』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甲午本』藿香正氣散은 『草本卷』藿香正氣散에서 藿香을 5分 늘리고, 大腹皮 蒼朮 陳皮 厚朴 半夏 甘草를 각각 5分씩 감량시켰으며, 白朮 桂皮 木香 益母草 各 5分이 加해졌다. 『初版本』의 藿香正氣散은 『甲午本』藿香正氣散에서 厚朴, 木香, 益母草를 去하고 靑皮, 乾薑, 益智仁을 加했다. 이는 『甲午本』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桂皮 乾薑 益智仁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草本卷』藿香正氣散에서 『甲午本』藿香正氣散으로 오면서 白朮 桂皮 木香 益母草 各 5分이 加해졌다가 다시 이들 藥物 중 木香과 益母草가 빠지고, 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に 제시된 乾薑과 益智仁이 加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藿香正氣散의 藥物 구성은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2]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의 藿香正氣散의 비교

(단위:錢)

藥物	草本卷 少陰人 藿香正氣散	甲午本 少陰人 藿香正氣散	初版本 少陰人 藿香正氣散
藿香	1	1.5	1.5
蘇葉	1	1	1
大腹皮	1	0.5	0.5
蒼朮	1	0.5	0.5
陳皮	1	0.5	0.5
厚朴	1	0.5	
半夏	1	0.5	0.5
甘草	1	0.5	0.5
生薑	3片	3片	3片
大棗	2枚	2枚	2枚
白朮		0.5	0.5
桂皮		0.5	0.5
木香		0.5	
益母草		0.5	
靑皮			0.5
乾薑			0.5
益智仁			0.5

### (2) 補中益氣湯

補中益氣湯은 『草本卷』에 보이는 藥物의 分量과 종류가 『甲午本』에서 달라지고 또한 『初版本』에서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甲午本』補中益氣湯은 『草本卷』補中益氣湯에서 人參을 1錢 증량시키고, 白朮과 當歸는 0.3錢 증량되었으며, 陳皮는 0.5錢 증량되었다. 또한 桂皮 2錢, 白芍藥과 川芎 各 1錢이 加하여져서 구성되었다. 『初版本』補中益氣湯은 『甲午本』補中益氣湯에서 桂枝와 川芎이 去해지고 人參이 1錢 증량되었으며, 藿香과 蘇葉이 各 0.3錢 或 0.5錢으로 加해지게 된다. 이는 『甲午本』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に 기재된 補中益氣湯의 今考更定 내용과 같이 東垣書의 補中益氣湯에서 黃芪를 3錢으로 하고 升麻와 柴胡를 去하고, 藿香과 蘇葉을 加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人參을 東垣의 補中益氣湯보다 2錢 증량 시킨 것이 다르고, 藿香과 蘇葉을 加함에 있어서 0.3錢 或 0.5錢으로 확정된 分量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東武가 환자의 病證에 대한 정확한 執證과 그에 따라 加減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補中益氣湯의 藥物 구성은 [표 3]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3] 草本卷, 甲午本, 初版本 補中益氣湯의 비교  
(단위: 錢)

藥物	草本卷 少陰人 補中益氣湯	甲午本 少陰人 補中益氣湯	初版本 少陰人 補中益氣湯
黃芪	3	3	3
人參	1	2	3
甘草	1	1	1
白朮	0.7	1	1
當歸	0.7	1	1
陳皮	0.5	1	1
桂枝		2	
白芍藥		1	
川芎		1	
生薑	3片	3片	3片
大棗	2枚	2枚	2枚
藿香			0.3 或 0.5
蘇葉			0.3 或 0.5

2) 『草本卷』 少陰人 藥方과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の 同名藥方

『草本卷』 少陰人 藥方과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に 동일하게 命名된 藥方은 藿香正氣散과 補中益氣湯의 2개 藥方이다.

(1) 藿香正氣散

藿香正氣散은 『草本卷』에 보이는 藥物의 分量과 종류가 『甲午本』과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甲午本』 藿香正氣散은 『草本卷』 藿香正氣散에서 藿香을 5分 늘리고, 大腹皮 蒼朮 陳皮 厚朴 半夏 甘草를 각각 5分씩 減량시켰으며, 白朮 桂皮 木香 益母草 各 5分이 加해졌다. 『草本卷』 藿香正氣散과 『甲午本』 藿香正氣散의 藥物 구성은 [표 4]에 정리된 바와 같다.

『甲午本』 少陰人 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에서는 설명하기를 龔信醫鑑書中에서 출전되었다고 밝히고

그 主治를 治傷寒으로 제시하였으며, 龔信의 藿香正氣散에서 桔梗 白芷 白茯苓을 去하고 桂皮 乾薑 益智仁을 사용해야한다고 하였다.<sup>10)</sup> 그러나 『甲午本』 新定方に 기재된 藥材 構成을 살펴보면 桔梗 白芷 白茯苓을 去하고 白朮 桂皮 木香 益母草를 加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草本卷』 藿香正氣散은 그 용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龔信의 藿香正氣散에서 桔梗 白芷 白茯苓을 去하여 사용하였고 藥物의 用量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재로써 살펴보면 된다면 藿香正氣散은 『草本卷』에서 우선 龔信의 藿香正氣散에서 少陰人에 맞지 않는다고 파악한 藥物을 제거하고 그 藥物 分量을 동일하게 1錢을 사용하여 하였다가 『甲午本』에서는 『草本卷』에서 去한 藥物은 마찬가지로 去하고, 藥物 分量을 龔信의 藿香正氣散에 기재된 藥物 分量으로 다시 복원하고, 白朮 桂皮 木香 益母草를 加하여 사용하였다.

[표 4] 草本卷 藿香正氣散과 甲午本 藿香正氣散의 비교  
(단위: 錢)

藥物	草本卷 少陰人 藿香正氣散	甲午本 少陰人 藿香正氣散
藿香	1	1.5
蘇葉	1	1
大腹皮	1	0.5
蒼朮	1	0.5
陳皮	1	0.5
厚朴	1	0.5
半夏	1	0.5
甘草	1	0.5
生薑	3片	3片
大棗	2枚	2枚
白朮		0.5
桂皮		0.5
木香		0.5
益母草		0.5

10)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復元本). 서울:四象體質醫學會. 2001. p.28

藿香正氣散 : 藿香 一錢五分 紫蘇葉 一錢 厚朴 大腹皮 白朮 陳皮 半夏 甘草 桔梗 白芷 白茯苓 各五分 生薑 三片 大棗 二枚. 此方 出於龔信醫鑑書中. 治傷寒. 今考更定 此方 當去桔梗 白芷 白茯苓, 當用桂皮 乾薑 益智仁.

『草本卷』의 藿香正氣散을 사용한 病證例은 『草本卷』 病證篇에 기재된 것이 없으며 藥方篇에 主治가 治外感通用으로 少陰人 外感의 病證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甲午本』 藿香正氣散은 『草本卷』의 病證 개념에서 이어와서 表病을 설정하는 하나의 病證 개념으로 선택하고<sup>11)</sup>, 그 病證이 體質病證중 少陰人 表病證을 해결하려는데 있어 불분명하여 새로운 藥方을 설정하고 있는 개념이 있으며<sup>12)</sup>, 太陽病 下焦血證中 少腹硬滿證에 사용하려 하였다<sup>13)</sup>. 또한 太陰病에 사용하는 藥方개념을 두어 裏病證에 사용하려는 용례를 보인다<sup>14)</sup>.

(2) 補中益氣湯

『草本卷』 補中益氣湯과 『甲午本』 補中益氣湯은 藥物의 종류와 分量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甲午本』 補中益氣湯은 『草本卷』 補中益氣湯에서 人參을 1錢 증량시키고, 白朮과 當歸는 0.3錢 증량되었으며, 陳皮는 0.5錢 증량되었다. 또한 桂皮 2錢, 白芍藥과 川芎 各 1錢이 추가하여져서 구성되었다. 『草本卷』 補中益氣湯과 『甲午本』 補中益

氣湯의 藥物 구성은 [표 5]에 정리된 바와 같다.

『甲午本』 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 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に 기재된 補中益氣湯을 살펴보면 李杲東垣書가 그 출전이며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로 그 主治가 기재되어 있고 이 藥方을 東武는 黃芪를 3錢으로 하고 升麻 柴胡를 去하고 藿香과 紫蘇葉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sup>15)</sup> 그러나 정작 新定方に 기재된 補中益氣湯은 黃芪를 3錢으로 늘리고 人參을 1錢 늘렸으며 甘草 白朮 當歸 陳皮를 모두 1錢으로 증가시키고 桂枝 2錢 白芍藥 1錢 川芎 1錢을 加하여 立方하고 있다. 『草本卷』 補中益氣湯은 東垣의 補中益氣湯에서 黃芪를 3錢으로 늘리고 少陰人 藥材가 아닌 升麻와 柴胡만을 去하여 立方하고 이것으로 少陰人 病證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즉 東武는 『草本卷』까지 東垣의 補中益氣湯에서 升麻, 柴胡를 去해서 사용하여 少陰人 病證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甲午本』으로 연계되면서 여기에 桂枝, 白芍藥, 川芎의 藥材를 加味해서 사용하려는 정신까지 臨床經驗이 발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11)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12

5. 今考更定 此證 當用桂枝湯 香蘇散 藿香正氣散. 藥不可以不盡善擇美則 別爲增附. ....

12)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上掲書. p.12

6. 論曰 張仲景所論太陽傷風病 卽少陰人外感表證也. 古人之桂枝湯 有證有方而 執證分明 後人之香蘇散 藿香正氣散 有證有方而 執證未分明. 今茲更定證則 必得古人之證 藥則並用古人今人之藥.

13)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上掲書. pp.12,17

「少陰人 外感病論」

12. 今考更定 已上諸證 不當用抵當湯 ... 藥不可以不盡善擇美則 別爲增附 此證 ... 胸間胃氣怕寒而清爽則 當用藿香正氣散 香砂養胃湯 薑朮破積湯 和解之. 若外熱包裡冷而 毒氣重結於內 或將有養虎有患之弊則 當用巴豆丹 下利二度 因藿香正氣散 升陽八物湯 和解而 峻補之.

「少陰人 內觸胃病論」

13. 今考更定 已上諸證 卽少陰人下達臍腹大腸之胃氣虛弱 食物滯滯而 一二三日內 新氣添積 漸得快健則 終能變革消化下利之證也 ... 已上諸證 當用藿香正氣散 ...

14)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上掲書. p.23

「少陰人 腎胃病篇尾泛論」

1. 論曰 ... 自利而不渴者 爲太陰病 自利而渴者 爲少陰病 太陰少陰之自利形證一也而 渴不渴之間 相去遠甚而 冷氣之聚散輕重 雲夢之比滯滯也. 是故 藿香正氣散. 平地駿馬之病勢也 ...

15)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27

補中益氣湯: 黃芪 一錢五分 炙甘草 人參 白朮 各一錢 當歸 陳皮 各七分 升麻 柴胡 各三分 生薑三片 大棗二枚. 此方出於李杲東垣書中 治勞倦虛弱 身熱而煩 自汗倦怠. ○ 今考更定 此方 黃耆 當用三錢 而當去升麻 柴胡 當用藿香 紫蘇葉

〔표 5〕 草本卷 補中益氣湯과 甲午本 補中益氣湯의 비교  
(단위: 錢)

藥物	草本卷 少陰人 補中益氣湯	甲午本 少陰人 補中益氣湯
黃芪	3	3
人參	1	2
甘草	1	1
白朮	0.7	1
當歸	0.7	1
陳皮	0.5	1
桂枝		2
白芍藥		1
川芎		1
生薑	3片	3片
大棗	2枚	2枚

『草本卷』에서 補中益氣湯을 사용한 病證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藥方篇에서 治內傷頭痛, 眩暈, 憎寒, 壯熱, 不知食味, 四體無力이라는 主治만이 기재되어 있다. 『甲午本』에서 補中益氣湯은 鬱狂證과 亡陽證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發熱과 汗出의 양상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기재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病證의 연계는 『草本卷』과 『甲午本』 사이에 있어서 큰 연관성이 없고 藥材의 構成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보이게 된다.

3)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과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の 同名藥方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과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に 동일하게 命名된 藥方은 芎歸香蘇散, 藿香正氣散, 川芎桂枝湯, 補中益氣湯, 獨蔘八物湯, 香砂養胃湯, 白何烏理中湯, 鷄蔘膏, 巴豆丹의 9개 藥方이다.

(1) 芎歸香蘇散

『甲午本』의 芎歸香蘇散과 『初版本』의 芎歸香蘇散은 藥物의 分量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初版本』의 芎歸香蘇散은 『甲午本』의 芎歸香蘇散에서 紫蘇葉이 1錢으로 감량되고, 香附子가 2錢으로 1錢 증량되었으며, 蔥白이 2莖 증량 되었고, 大棗 2枚가 더해져서 構成이 되었다. 『甲午本』 芎歸香蘇散과 『初版本』 芎歸香蘇散의 藥物 구성은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다.

蔥白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少陰人의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이 陽煖之氣를 도와주려는 방법의 하나로 보이며, 大棗는 少陰人의 脾胃氣를 도와주려는 방향으로 加味되었고 大棗의 사용은 少陰人 藥方의 대부분의 構成에서 보이게 된다. 이러한 構成상의 차이는 東武가 임상경험을 통해서 藥物의 加減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藥物의 구성상의 맥락은 모두 연계되어 少陰人 表病證을 해결하려는 藥方으로 立方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표 6〕 甲午本 芎歸香蘇散과 初版本 芎歸香蘇散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少陰人 芎歸香蘇散	初版本 少陰人 芎歸香蘇散
紫蘇葉	2	1
香附子	1	2
川芎	1	1
當歸	1	1
陳皮	1	1
蒼朮	1	1
甘草	1	1
生薑	3片	3片
蔥白	3莖	5莖
大棗		2枚

16)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p.13-15

「少陰人外感病論」

21. 今考更定 ... 此證 自汗出 小便利者 當用補中益氣湯 ... 發熱汗多者 當用 ... 補中益氣湯 ...

27. 今考更定 ... 澀然微汗出 潮熱 微喘者 當用... 補中益氣湯 ...

42. 少陰人 太陽病... 無惡寒證而腹中硬滿者 用巴豆半粒 因以補中益氣湯壓之三四服 又連日服.

芎歸香蘇散은 『甲午本』에서 少陰人 表病證中 發熱惡寒無汗한 證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立方되어 있고<sup>17)</sup>, 이는 『初版本』에서 少陰人 表病證中 發熱惡寒無汗한 證에 사용되는 藥方<sup>18)</sup>으로 동일한 病證 용례를 가진다. 따라서 芎歸香蘇散은 『甲午本』 시기에 少陰人 表病證중 發熱惡寒無汗의 證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입지를 굳히고 이 病證에 대한 용례가 『初版本』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2) 藿香正氣散

『甲午本』의 藿香正氣散과 『初版本』의 藿香正氣散은 藥物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初版本』의 藿香正氣散은 『甲午本』 藿香正氣散에서 厚朴, 木香, 益母草를 去하고 靑皮, 乾薑, 益智仁을 加했다. 이는 『甲午本』 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桂皮 乾薑 益智仁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草本卷』 藿香正氣散에서 『甲午本』 藿香正氣散으로 오면서 白朮 桂皮 木香 益母草 各 5分이 加해졌다가 다시 이들 藥物 중 木香 益母草가 빠지고, 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に 제시된 乾薑과 益智仁이 加해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 『甲午本』 藿香正氣散과 『初版本』 藿香正氣散의 藥物 구성은 [표 7]에 정리된 바와 같다.

藿香正氣散의 용례는 『甲午本』에서 少陰人 表病을 立方하는데 있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表熱病의 증상에 사용하는 용례를 설명하고 있고, 太陽病 下焦血證에 少腹硬滿者와 外熱包裹冷하는 症狀에 사용하는 용례가

기재되어 있으며 太陰證에 사용하는 용례가 있다. 이러한 개념의 病證은 『初版本』에 거의 동일하게 기재되며 이로써 藿香正氣散은 表裏를 겸하는 症狀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藿香正氣散은 表裏를 겸하는 症狀에 대표적인 치료 방제로 자리 매김하며 心腹의 痞滯가 나타나는 太陰證에 경미한 表熱性 外證이 있는 證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가볍게 冷寒性 腹痛을 다스릴 수 있는 藥方이라고 하겠다.

[표 7] 甲午本 藿香正氣散과 初版本 藿香正氣散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藿香正氣散	初版本 藿香正氣散
藿香	1.5	1.5
紫蘇葉	1	1
白朮	0.5	0.5
半夏	0.5	0.5
厚朴	0.5	
大腹皮	0.5	0.5
陳皮	0.5	0.5
桂皮	0.5	0.5
木香	0.5	
益母草	0.5	
蒼朮	0.5	0.5
甘草	0.5	0.5
生薑	3片	3片
大棗	2枚	2枚
靑皮		0.5
乾薑		0.5
益智仁		0.5

### (3) 川芎桂枝湯

『甲午本』 川芎桂枝湯과 『初版本』 川芎桂枝湯은 藥物의 分量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初版本』 川芎桂枝湯은 『甲午本』

17)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前掲書. p.12

「少陰人外感病論」

5. 今考更定 ... 此證 發熱惡寒無汗者 當用芎歸香蘇散 ...

18)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서울:여강출판사. 1992. p.74

「少陰人 腎受熱表熱病論」

論曰 張仲景所論... 此證 發熱惡寒而無汗者 當用 ... 芎歸香蘇散...

川芎桂枝湯에서 蘇葉이 去해지고, 蒼朮과 陳皮가 각 1錢씩 加해진다. 『甲午本』 川芎桂枝湯과 『初版本』 川芎桂枝湯의 藥物 구성은 [표 8]에 정리된 바와 같다.

蘇葉을 去하는 것은 鬱狂證에 나타난 表證의 양상보다 蒼朮과 陳皮로 少陰人의 內的인 陰寒之氣를 해소하려는 측면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東武는 少陰人 保命之主인 陽煖之氣에 대한 해소 方면의 藥物들을 지속적으로 加味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甲午本 川芎桂枝湯과 初版本 川芎桂枝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川芎桂枝湯	初版本 川芎桂枝湯
桂枝	3	3
白芍藥	2	2
川芎	1	1
蘇葉	1	
甘草	1	1
生薑	3片	3片
大棗	2枚	2枚
蒼朮		1
陳皮		1

『甲午本』 川芎桂枝湯과 『初版本』 川芎桂枝湯은 모두 少陰人 鬱狂證을 해결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藥方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甲午本』의 시각이 변하지 않고 『初版本』에서도 연결된다.

(4) 補中益氣湯

『甲午本』 補中益氣湯과 『初版本』 補中益氣湯은 藥物의 分量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는데, 『初版本』 補中益氣湯은 『甲午本』 補中益氣湯에서 桂枝와 川芎이 去해지고 人參이 1錢 증량되었으며, 藿香과 蘇葉이 各 0.3錢 或 0.5錢으로 加해지게 된다. 이는 『甲午本』 宋元明 三代醫家著述中 少陰人病 經驗行用要藥 十三方に 기재된 補中益氣湯의 今考

更定 내용과 같이 東垣書의 補中益氣湯에서 黃芪를 3錢으로 하고 升麻와 柴胡를 去하고, 藿香과 蘇葉을 加하여 이루어진다. 다만 人參을 東垣의 補中益氣湯보다 2錢 증량 시킨 것이 다르고, 藿香과 蘇葉을 加함에 있어서 0.3 錢 或 0.5錢으로 확정된 分量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東武가 환자의 病證에 대한 정확한 執證과 그에 따라 加減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甲午本』 補中益氣湯과 『初版本』 補中益氣湯의 藥物 구성은 [표 9]에 정리된 바와 같다.

桂枝가 去해지고 藿香과 蘇葉이 加해지는 것은 桂枝의 風寒의 解消力을 藿香과 蘇葉으로 해소하려고 함이며 이는 桂枝의 解肌作用보다 藿香과 蘇葉의 冷寒之氣의 解消力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9] 甲午本 補中益氣湯과 初版本 補中益氣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補中益氣湯	初版本 補中益氣湯
黃芪	3	3
桂枝	2	
人參	2	3
白芍藥	1	
甘草	1	1
當歸	1	1
白朮	1	1
川芎	1	
陳皮	1	1
生薑	3片	3片
大棗	2枚	2枚
藿香		0.3 或 0.5
蘇葉		0.3 或 0.5

『甲午本』 補中益氣湯의 病證 方에는 鬱狂證과 亡陽證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藥方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初版本』에서는 넘어오면서 鬱狂證에 사용하기 보다 亡陽證 初證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사용되고 있다.

(5) 獨蓼八物湯

『甲午本』 獨蓼八物湯과 『初版本』 獨蓼八物湯은 藥物의 分量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初版本』 獨蓼八物湯은 『甲午本』 獨蓼八物湯에서 人參이 5錢 증량되고 黃芪가 2錢감량되었으며 官桂와 甘草가 빠지고 陳皮가 1錢 加해졌다. 가장 큰 변화는 人參이 1兩으로 증가된 것과 黃芪의 용량이 1錢으로 감량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黃芪의 補氣와 補脾의 能보다 人參의 少陰人 保命之主인 陽煖之氣를 도와주는 能을 더 중시한 藥方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甲午本』 獨蓼八物湯과 『初版本』 獨蓼八物湯의 藥物 구성은 [표 10]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0] 甲午本 獨蓼八物湯과 初版本 獨蓼八物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獨蓼八物湯	初版本 獨蓼八物湯
人參	5	10
黃芪	3	1
當歸	1	1
川芎	1	1
官桂	1	
白芍藥	1	1
白朮	1	1
甘草	1	
生薑	3片	3片
大棗	2枚	2枚
陳皮		1

『甲午本』 獨蓼八物湯은 『甲午本』에서 鬱狂證과 亡陽證에 모두 사용된 藥方으로 제시되었는데 반해, 『初版本』 獨蓼八物湯은 鬱狂證 藥方으로 사용된다.

(6) 香砂養胃湯

『甲午本』 香砂養胃湯과 『初版本』 香砂養胃湯은 藥物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初版本』 香砂養胃湯은 『甲午本』 香砂養胃湯에서 麝香이 去해지고 乾薑이 1錢 加해졌다. 『甲午本』 香砂養胃湯과 『初版本』 香砂養胃湯의 藥物 구성은 [표 11]에 정리된 바와 같다. 麝香을 去하게 되는 것은 약재 자체의 소속의 변화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고, 乾薑이 加해지는 것은 陽煖之氣의 유지를 위해 加하여 진 것으로 파악된다.

『甲午本』 香砂養胃湯은 『甲午本』에서 太陽病 下焦血證과 太陰證에 사용되는 용례가 기재되어 있으며, 『初版本』에서는 太陽病 下焦血證과 太陰證에 사용되는 용례는 그대로 연결되고, 陽明病<sup>19)</sup>에 사용되는 용례가 추가되어 있다.

[표 11] 甲午本 香砂養胃湯과 初版本 香砂養胃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香砂養胃湯	初版本 香砂養胃湯
人參	1	1
白朮	1	1
白芍藥	1	1
甘草	1	1
半夏	1	1
香附子	1	1
陳皮	1	1
麝香	1	
砂仁	1	1
白豆蔻	1	1
山查肉	1	1
生薑	3片	3片
大棗	2枚	2枚
乾薑		1

19) 東醫壽世保元. 前掲書, p.78

"張仲景曰 婦人 傷寒發熱 經水 適來斷 晝日明了 夜則譫語 如見鬼狀 此爲熱入血室 ..."

"陽明病 口燥嗽水不欲嚥 此必衄 不下."

"陽明病不能食 攻其熱 必噦 傷寒嘔多 雖有陽明 不可攻 胃家實不大便 ..."

"論曰 右諸證 當用... 香砂養胃湯..."

(7) 白何烏理中湯

『甲午本』 白何烏理中湯과 『初版本』 白何烏理中湯은 藥物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初版本』 白何烏理中湯은 『甲午本』 白何烏理中湯에서 獨頭蒜, 山查肉, 大棗가 去해지고 構成되었다. 『甲午本』 白何烏理中湯과 『初版本』 白何烏理中湯의 藥物 구성은 [표 1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2] 甲午本 白何烏理中湯과 初版本 白何烏理中湯의 비교 (단위:錢)

藥物	甲午本 白何烏理中湯	初版本 白何烏理中湯
白何首烏	2	2
白芍藥	2	2
白朮	2	2
獨頭蒜	2	
桂枝	2	2
乾薑	2	2
山查肉	1	
陳皮	1	1
甘草	1	1
大棗	2枚	

『甲午本』에서 白何烏理中湯은 그 용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初版本』으로 연계되면서 이 藥方은 太陰證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立方되어 있다.

(8) 鷄參膏

『甲午本』 鷄參膏과 『初版本』 鷄參膏는 藥物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初版本』 鷄參膏는 『甲午本』 鷄參膏에서 桂皮가 1錢 加해졌다. 『甲午本』 鷄參膏와 『初版本』 鷄參膏의 藥物 구성은 [표 13]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3] 甲午本 鷄參膏와 初版本 鷄參膏의 비교

藥物	甲午本 鷄參膏	初版本 鷄參膏
人參	一兩	一兩
鷄	一首	一首
桂皮		一錢

『甲午本』 鷄參膏는 『甲午本』에서 病證論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初版本』 鷄參膏도 病證論에 기재된 바가 없다. 다만 新定方에 기재된 主治가 있는데 『甲午本』에서는 “此方出於古方書中 治瘡疾痢疾 此方用不人參而用 黃芪一兩 桂皮二錢則 名曰 鷄芪膏”라 기재하고 있고, 『初版本』에서는 “此方 自古有方 治瘡疾痢疾 神效 嘗治久瘡 先用 巴豆 通利大便 後數三日連用 鷄參膏 快效. 桂皮 或以桂心 代用.”이라하여 모두 瘡疾과 痢疾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인식하고 있다.

(9) 巴豆丹

『甲午本』 巴豆丹과 『初版本』 巴豆丹은 藥物의 종류 및 分量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이는 『初版本』 巴豆丹은 『甲午本』 巴豆丹에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甲午本』 巴豆丹과 『初版本』 巴豆丹의 藥物 구성은 [표 14]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14] 甲午本 巴豆丹과 初版本 巴豆丹의 비교

藥物	甲午本 巴豆丹	初版本 巴豆丹
巴豆	一顆	一粒

巴豆丹의 사용은 少陰人의 冷滯를 푸는 개념으로 大黃을 사용했던 傷寒論의 시각에서 巴豆를 사용하는 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甲午本』과 『初版本』에서 거의 같은 시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結 論

1. 『草本卷』 少陰人 藥方에 사용된 藥物은 44종이고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에 사용된 藥物은 47종으로 3종이 증가하였고,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에 사용된 藥物은 46종으로 『甲午本』 보다 1종이 감소하였다.

2. 『草本卷』 少陰人 藥方,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에 사용된 공통藥物은 大棗, 陳皮, 甘草 등 25종으로 이 藥物들은 少陰人 病證을 해결하는데 要藥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草本卷』 少陰人 藥方,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初版本』 少陰人 新定方에 모두 동일하게 名名된 藥方은 藿香正氣散과 補中益氣湯의 2개 藥方이며, 이들 藥方은 『甲午本』 에서 『初版本』 으로 오면서 宋元明 少陰人病經驗行用要藥에 기재된 바와 같이 考更定한 藥物의 加減과 거의 일치하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草本卷』 藥方과 『甲午本』 新定方の 同名藥方은 藿香正氣散과 補中益氣湯의 2개 藥方으로, 『草本卷』 에서 인식한 病證에 대한 藥方은 古方에서 각 體質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藥物을 배제한 藥方の 構成이었으며, 『甲午本』 新定方은 각 體質에 따른 고유한 病證을 해결하려고 立方한 藥方으로 古方에서 각 體質에 맞지 않은 藥物을 去하고 體質病證을 해결하기 위한 藥材를 加하는 立方의 형태를 보여준다.

5. 『甲午本』 新定方과 『初版本』 新定方の 同名藥方은 9개 藥方으로 巴豆丹을 제외하고 藥物의 종류나, 分量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즉 비록 동일하게 名名된 藥方이라도

『初版本』 에서 藥物 構成上의 차이를 보이며, 이는 東武가 계속적으로 藥方을 고쳐가고 있다는 증거로 파악할 수 있다.

6. 이상에서 東武의 임상경험 증가에 따라 藥方과 藥方에 사용되는 藥物의 선택이 더욱 정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李濟馬 著. 梁병무·차광석 譯. 東武遺稿(國譯漢醫學大系 15). 서울:海東醫學社. 1999.
2. 朴性植.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7
3. 金宗열·김경요. 四象 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少陰人編).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1):8-16
4. 曷운용·김경요. 「四象醫學草本卷」과 「東醫壽世保元」 初版本의 비교를 통한 사상방제의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2000;12(2):43-55
5. 배효상·박성식. 太陰人 處方の 형성과정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110-123
6.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原人手抄本). 서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1999.
7.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復元本). 서울: 四象體質醫學會. 2001.
8.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1901年版 初版本影印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8.
9.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서울: 여강출판사. 1992.